

'햇빛소득마을' 공모 선점 박차

임실군, 읍·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성료... 향후 공모 앞두고 추가 수요 파악 나서

임실군이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읍·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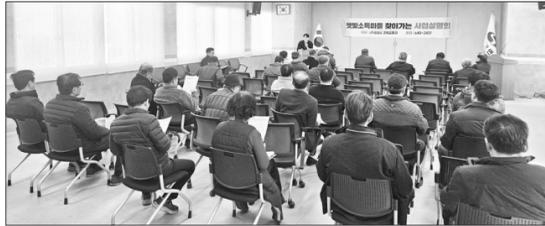
군은 지난 2월 10일, 관촌면을 시작으로 관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마을 이장과 주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공모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참여 절차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마을단위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업 적정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우리 마을 어느 필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군은 현재 정부의 세부 사업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후보지 발굴부터 인허가 검토, 사업추진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임실군이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읍·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설명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애로사항과 건의의견을 정부사업지침 수립과정에 적극 전달해 정부와 마을 협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설명회 이후 사업참여 의사를 밝히는 마을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군은 향후 공모신청전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참여희망마을을 더욱 확대하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마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초 신설된 전담 조직(TF팀)을 중심으로 단순 공모 선정에 그치지 않고 마을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수의 모델을 설계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임실군은 공모 선정 가능성이 높이기 위해 정부 지침 확정 즉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농촌 주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발전사업 허가, 법인 설립 등 농촌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초기 행정 절차를 밀착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임실=진종영 기자

이동노동자 거점형 쉼터 조성 탄력

남원시,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3,43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고령된 사무실 없이 야외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 공간 조성과 복지 대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남원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시는 확보한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운영 중인 '남원시 청년일자리센터' 공간 일부를 이동노동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일자리센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냉·난방 시설, 안마의자, 헬멧 살균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해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종사자가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1인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헬멧, 장갑 등 안전용품 구입비, 유류비, 운송수단 정비 및 수리비 등이며, 영수증 제출 시 실비로 지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 추진

남원시가 소속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2026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시 산하 13개 부서, 30개 사업장의 시설 및 작업 전반을 대

상으로 진행, 시는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수준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반복적·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작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입안전보 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순창군, 2억3000여만원 예산 투입 약 138대 대상

순창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순창군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 2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38대의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와 지게차, 굴착기 등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진단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차량의 차종과 연식,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폐차 이후 배출가스 저감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독거노인 현황 전수조사 실시

남원시가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 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독거노인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물론, 서류상 가구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홀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남원시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고립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원시는 전체 인구 7만 5천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5천여명(약 33%)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며, 특히 2025년 기준 독거노인은 7,378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

리와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선 및 방문 상담을 병행해 독거노인의 생활 현황과 돌봄 서비스 욕구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사업 △AI안부전화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실질적 거주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과 실제 거주 현황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보건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추가 지정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내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주로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남원시 보건소는 기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인 '남원내과의원'에 이어 '김진수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추가 지정했다.

표본감시는 주 1회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령대별 총 진료환자 수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접수

순창군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순창군은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 등 연 4회 가능하며 신청 시기가 빠른수록 공제율이 높다.

3월 연납을 신청할 경우 약 3.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다.

또 위택스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